인민의 웃음 넘치는
행복의 별천지









평양출판사

인민의 웃음 넘치는

행복의 별천지

주체110(2021). 12.

화첩을 내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성스러운 10년려정의 갈피갈피에는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일떠세우시려 바치신 헌신과 로고의 낮과 밤들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10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언제나 마음속에 인민을 소중히 새겨안으시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끊임없는 사색과 실천의 날과 달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어찌하여 우리 원수님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헌신의 자욱자욱을 끝없이 새겨가시였던가.

인민에 대한 사랑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인민을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철석의 신념, 인민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하며 인민의 권익을 침해하는데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을 불허하시는 드팀없는 의지,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불같은 열망의 분출이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천사만사를 다 돌보셔야 하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뿌려져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진정을 안으시고 깊은 밤 천리길도 한달음에 달려가시였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해 로천에 솟구치는 온천의 물맛도 스스럼없이 보아주시였으며 시운전중에 있는 스키장의 삭도에도 서슴없이 오르시였다.

그렇듯 심혈과 정을 기울여 일떠세우신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을 돌아보실 때마다 이제 여기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날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그리도 절절하게 말씀하시던 우리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이렇듯 무한한 사랑과 불같은 헌신에 떠받들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이 멋들어진 자태를 드러냈는가 하면 명당자리들마다에 연풍과학자휴양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특색있게 일떠섰고 수수천년 잠들었던 마식령의 천연수림을 깨우며 세계적인 마식령스키장이 웅장한 제모습을 드러냈다.

웅장하고 화려하며 희한하고 멋들어진 행복의 별천지들에서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편집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10년려정우에 수놓아진 숭고한 화폭들과 행복의 별천지들에서 끝없이 울려나오는 인민의 웃음넘친 모습들 가운데서 그 일부를 묶어 화첩으로 펴낸다.

편집부

릉라인민유원지

주체101(2012)년 7월 준공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릉라도에 종합적인 유원지인 릉라인민유원지가 훌륭히 일떠섰다.

릉라인민유원지는 곱등어들의 재주를 보여주며 여러 바다동물들에 대한 상식을 주는 릉라곱등어관, 여러개의 주로를 가진 물미끄럼대와 덕수터, 조약대, 물놀이수조, 롱구장과 배구장, 모래터배구장 등이 잘 꾸려진 릉라물놀이장, 최신식유희오락시설들과 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릉라유희장과 미니골프장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릉라인민유원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혈과 정을 부어 완성시켜주신 뜨거운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릉라인민유원지개발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4월]

위인일화

새로 꾸려진 시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릉라인민유원지를 찾으신것은 삼복의 무더위가 한창이던 주체101(2012)년 7월말이였다.

이날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올 물놀이장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물놀이장의 각종 시설들과 주변환경을 흰색, 푸른색, 록색으로 처리함으로써 놀이장의 전반적분위기를 깨끗하면서도 상쾌하게 조성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세계에 손꼽히는 릉라곱등어관, 릉라유희장과 함께 멋들어지게 건설된 릉라물놀이장은 바라볼수록 희한했다.

넓고 시원하게 펼쳐진 물놀이수조들과 물미끄럼대, 조약대들, 현대적인 탈의샤와실과 그 지붕우에 꾸려진 모래터배구장, 롱구장, 배구장들, 푸른 주단을 펼친듯한 인공잔디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탈의샤와실지붕에 꾸려진 롱구장, 배구장, 모래터배구장을 돌아보시면서는 공간리용을 합리적으로 꾸린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물놀이장에 응급치료를 할수 있는 치료실과 감시대도 꾸려주며 구조를 할수 있는 대책도 세워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희한한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마련해주시고도 사소한 사고라도 있을세라 인민을 위해 무엇인가 더 해주고싶으시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렇게 되여 릉라물놀이장에는 응급치료를 할수 있는 치료실과 함께 감시대가 새로 꾸려지게 되였다.

릉라인민유원지는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건설한 인민의 유원지입니다. 릉라도에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유희장뿐 아니라 곱등어관까지 건설해놓으니 릉라도가 인민의 유원지로서 그야말로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릉라도지구는 명실공히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길수 있는 종합적인 인민의 유원지입니다.

김 정 은





릉라인민유원지 준공식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7월]

















릉라곱등어관













릉라물놀이장

2017년 8월 촬영

통일거리운동쎈터

주체101(2012)년 9월 준공



통일거리운동쎈터는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구상에 따라 일떠선 현대적인 대중운동쎈터이다.

통일거리운동쎈터는 건강운동실, 수중초음파실, 건강회복실, 탁구장, 청량음료점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에는 체력단련을 할수 있는 달리기운동기재, 자전거운동기재, 노젓기운동기재를 비롯한 각종 운동기재들과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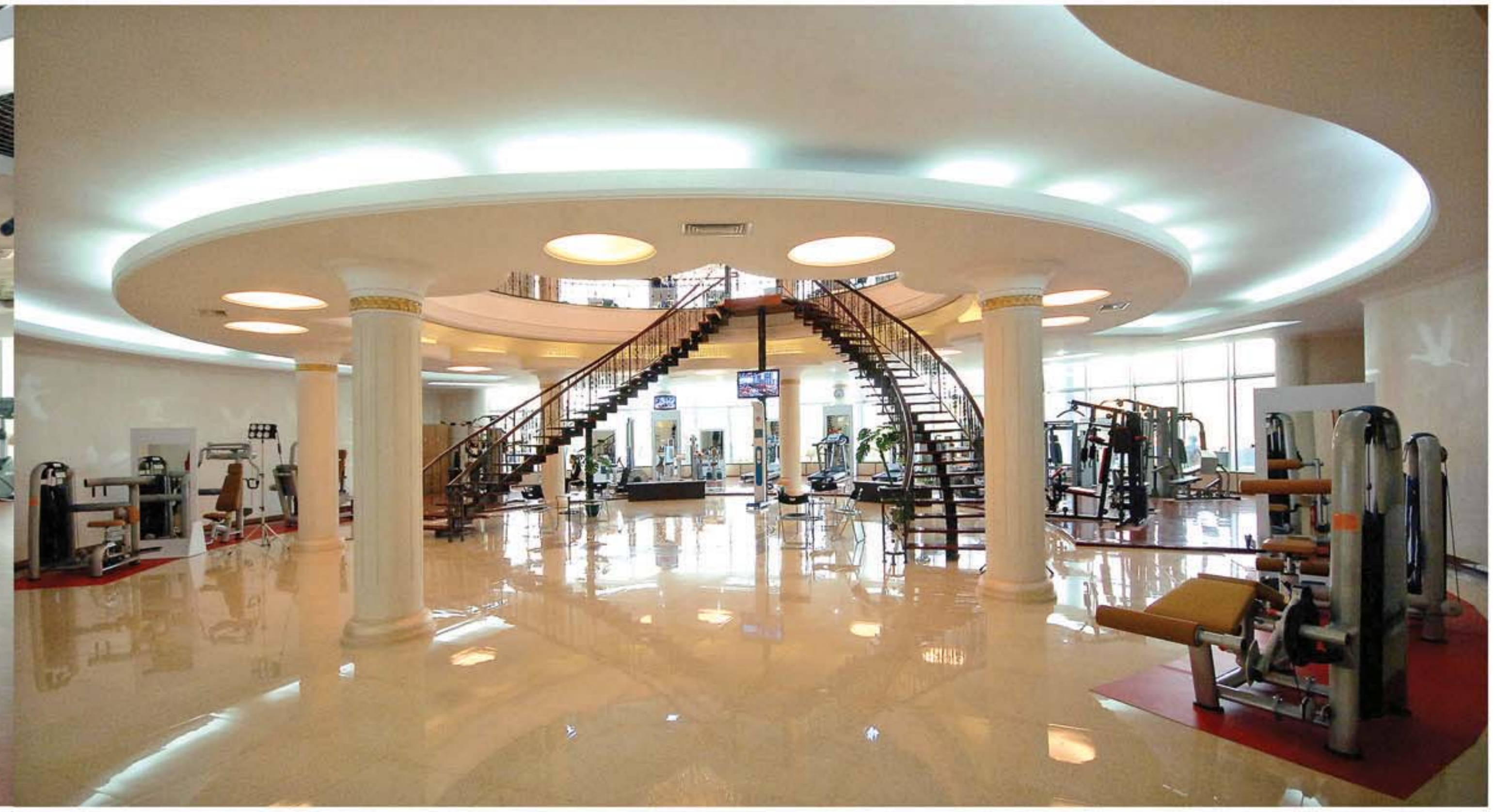






준공을 앞둔 통일거리운동쎈터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9월]





건강과 치료에 좋은
각종 운동기재들













2017년 10월 촬영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주체101(2012)년 11월 준공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리워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인 류경원과 나라의 빙상체육발전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기지의 하나인 인민야외빙상장이 훌륭히 일떠섰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되여있는 류경원은 대중목욕탕, 가족목욕탕, 개별목욕탕, 치료체육실, 리발실과 미용실, 오락장, 식당, 청량음료실, 지하차고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인민야외빙상장에는 사철 스케트를 탈수 있는 빙상홀과 스케트내주는 곳, 대기 및 휴계실, 의료실, 방송실, 감시실 등이 있다.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여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5월]

위인일화

달라진 안내판

주체101(2012)년 11월 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류경원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대동강반의 풍치와 어울리게 시원스러운 물결모양의 지붕을 떠이고 특색있게 일떠선 류경원의 외부를 기쁨속에 바라보시였다.

이윽하여 원수님께서는 현관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의 얼굴에는 걸 볼 안이라고 어디라 흠잡을데 없이 훌륭하게 꾸려진 홀에 대한 감탄의 빛이 어리여있었다.

그런데 만족한 표정으로 홀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에 언뜻 그늘이 비끼는것이였다.

(왜 그러실가?)

모두가 영문을 알수 없어하는데 그이께서는 복도벽에 붙인 1층안내판이 초라하다고 지적하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그앞으로 다가가시여 안내판을 만져보시며 이렇게 요란하게 꾸린 류경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건물을 아무리 현대적으로 요란하게 꾸려놓았다고 하여도 안내판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사소한것들을 깐깐하게 잘 만들어놓지 않으면 건물의 품위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벽에 붙여놓은 안내판을 가리키시며 2층안내판도 1층안내판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이 좋은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시였다.

그것은 누구의 눈에도 띄우지 않았던 옥에 티와도 같은 결함이였다.

하지만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하나하나의 시설물에 자그마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것을 철칙으로 여기시는 그이께서만은 그처럼 사소한 문제도 크게 보시였던것이다.

그후 안내판을 다시 잘 만들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류경원의 곳곳에는 건물의 현대미에 어울리는 멋진 안내판이 붙여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였다.



완공단계에 이른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7월]

류경원



류경원에 꾸려진 편의봉사시설들




















2018년 7월-12월 촬영

로라스케트장

주체101(2012)년 11월 준공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로라스케트장이 현대적으로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야외빙상장이 자리잡고있는 대동강기슭에 로라스케트장을 건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로라스케트장에는 로라호케이장, 기교장과 로라스케트내주는 곳, 남, 녀탈의실, 청량음료점 등 봉사망이 그쯘히 꾸려져있어 이곳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마음껏 운동도 하고 충분한 휴식도 할수 있게 되여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입니다.

김 정 은



준공을 앞둔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11월]









2017년 7월-12월 촬영

만경대유희장

주체101(2012)년 10월 개건보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꾸려진 만경대유희장이 새롭게 변모되였다.

만경대유희장의 모든 유희시설들과 편의봉사건물들이 훌륭히 개건보수되였으며 새롭게 단장된 도로와 걸음길들이 주변의 수려한 경치와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있다.



홀륭히 개건보수된 만경대유희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10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습니다.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김 정 은







2018년 6월 촬영

문수물놀이장

주체102(2013)년 10월 완공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대규모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으로 건설된 문수물놀이장은 우리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또 하나의 현대적인 문화휴식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적인 물놀이장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였으며 여러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여 물놀이장건설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각종 물미끄럼대와 수조들로 꾸려진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이 특색있게 건설된 문수물놀이장에는 인민들이 사계절 아무런 불편도 없이 물놀이를 즐기며 휴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8월]







완공단계에 이른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9월]

위인일화

누구도 생각 못한 해가림대

주체102(2013)년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실내물놀이장의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여기에 해가림대를 설치해야겠다고 이르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물놀이장의 천정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채광이 잘되여 여름에는 몹시 더울수 있다고 누구에게라 없이 이야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해빛을 막을수 있는 차일풍을 설치해주어 인민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나와서 그밑에서 휴식도 하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격정의 파도를 몰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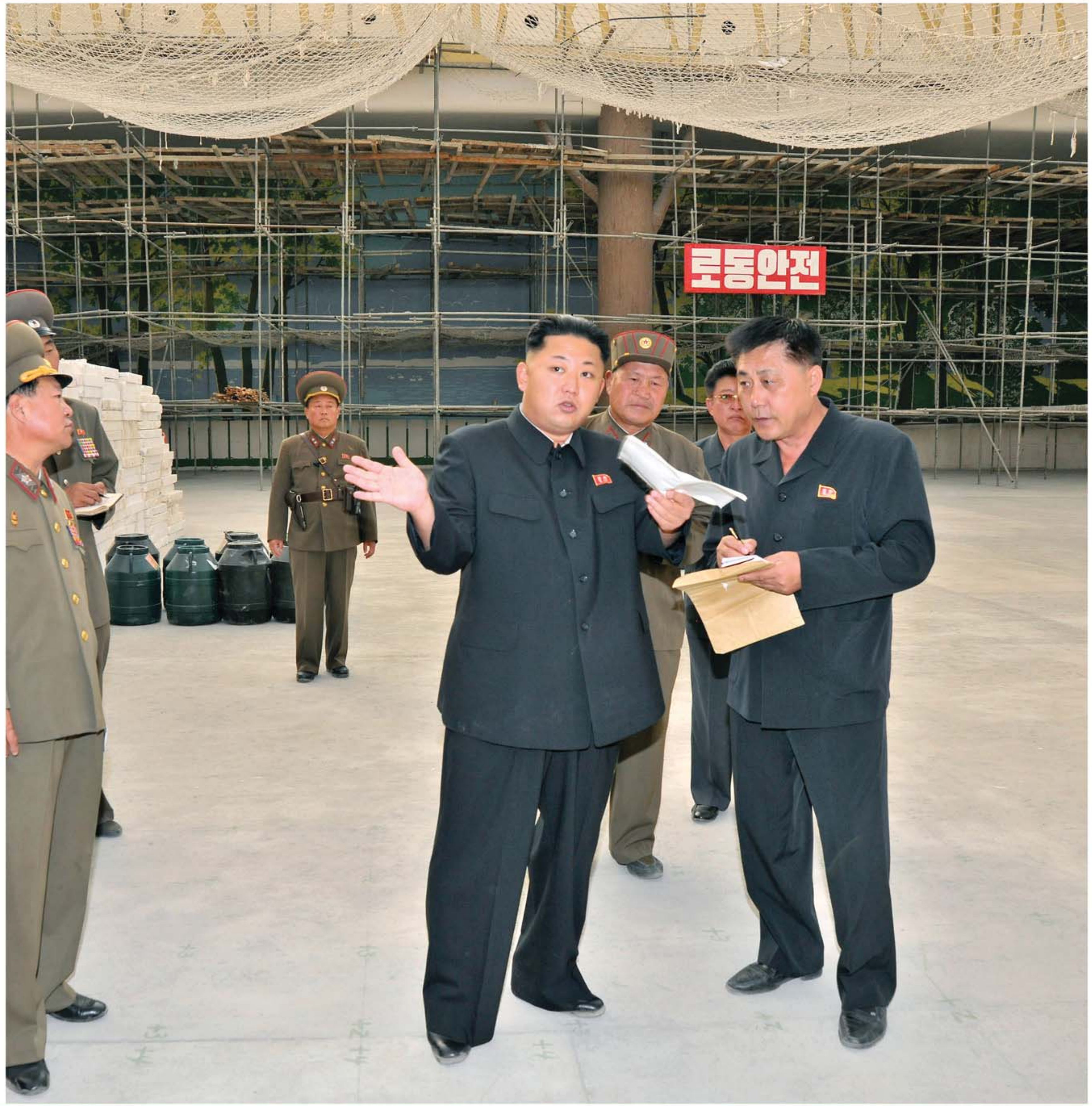
실내물놀이장에 해가림대가 있어야 한다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하지만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놀이장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깊이 관심하시며 누구도 생각지 못한 자그마한 세부에 대하여서도 대번에 헤아리시고 일깨워주신것이다.

찌물쿠는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인민들이 단잠에 든 깊은 밤에도 건설장을 찾고찾으신분.

지도하여주신 형성안만 하여도 113건이나 된다는 일화도, 동트는 새벽을 이 건설장에서 맞으시며 원수님께서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였다는 사연도 사람들은 여기 문수물놀이장에서 알게 되지 않았던가.

진정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오는 문수물놀이장이다.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또다시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9월]



물놀이수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좋아서 어쩔줄 몰라합니다. 누구나 이런 물놀이장에 들어서면 동심세계에 빠지는것같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저렇게 좋아하면서 즐겁게 놀 모습이 눈에 선하게 안겨옵니다.

김 정 은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10월]

















특색있게 꾸려진
편의봉사시설들













2019년 7월 촬영

미림승마구락부

주체102(2013)년 10월 완공



평양시교외에 꾸려진 미림승마구락부는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승마봉사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림지구에 인민을 위한 승마봉사기지를 건설할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현장을 여러 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승마구락부를 우리 당의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된 대중승마봉사기지로 완전무결하게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미림승마구락부에는 승마봉사소, 실내승마훈련장, 승마지식보급실 등이 있으며 야외에 인공산과 인공폭포, 인공못도 자연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안겨오게 특색있게 꾸려져있다.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8월]



완공단계에 이른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9월]

위인일화

3시간만에 다시 달려오신 밤길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의 깊은 밤이였다.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책임진 일군들은 좀처럼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방금전 이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걱정을 끼쳐드렸던것이다.

준절하게 하시던 질책의 말씀이 그냥 귀전에서 메아리쳤다.

그때로 말하면 완공의 날까지 불과 며칠밖에 남아있지 않던 때였다.

일군들의 가슴에 재가 앉았다. 건설장을 망연히 바라보느라니 근심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문득 건설장으로 강렬한 전조등빛이 비쳐들었다.

뒤이어 승용차의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일군들이 허둥지둥 달려가니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차에서 내리시는것이였다.

일군들모두의 눈길이 손목시계에 미쳤다.

새벽 3시 10분.

그러니 건설장을 떠나셨던 그이께서 3시간만에 다시 오신것이 아닌가.

그이께서는 자책과 놀라움이 뒤섞인 일군들의 얼굴을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지켜보시다가 나직한 어조로 좀전에 여기에 와서 봉사건물을 돌아보고 건설을 거칠게 한데 대하여 되게 비판하였는데 그대로는 잠을 이룰수 없어 다시 왔다고 하시며 건설대상들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선뜩한 새벽기운이 떠도는 건설장에서 한시간나마 지체하시며 건설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수정방안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3시간만에 다시 달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밤길!

그 길은 그대로 승마구락부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게 한 원천으로 되였다.

하여 그처럼 방대한 개작공사는 단 10여일만에 끝났으며 마침내 세계적인 승마구락부의 희한한 모습을 온 세상에 과시할수 있게 되였다.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10월]



나는 비록 작은것이라도 인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문제를 풀어주고 많은것은 아니라도 인민들에게 무엇이 차례지게 하였다는 보고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김 정 은


28




27
29
25
23










승마애호가경











2017년 10월 촬영

마식령스키장

주체102(2013)년 12월 완공



마식령의 풍치수려한 천연산악지대에 일떠선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은 체육과 관광, 휴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여름의 무더위와 12월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산세 험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고찾으시여 인민을 위한 대중체육관광기지로 훌륭하게 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마식령스키장은 모든 봉사시설들이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스키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훌륭히 꾸려졌다.



마식령스키장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이다.

김 정 은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11월]







완공을 앞둔 마식령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12월]





위인일화

대화봉이 전하는 이야기

주체102(2013)년 12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이날 봉사활동정형과 봉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삭도의자에 오르려고 하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광경에 일군들모두가 그이의 앞을 막아나서며 삭도에 오르시는것만은 절대로 안된다고 절절히 아뢰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만류하는 일군들을 가볍게 나무람하시며 차거운 삭도의자에 앉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들이 리용할 모든 주로들을 다 보겠다고 하시며 대화봉정점으로 향하시였다.

삭도를 타시고 대화봉으로 향하시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얼마후 삭도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삭도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설치되였고 주로들의 상태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마음껏 스키운동을 하며 희열에 넘쳐 웃고 떠들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그려보시는듯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가자 마식령스키장으로





자연과 친숙하면서도 산골맛이 나는 마식령호텔









2017년 12월 촬영

메아리사격관

주체103(2014)년 2월 개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현대적인 설비와 사격 및 오락시설들을 갖춘 메아리사격관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메아리사격관은 경치좋고 아늑한 청춘거리의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이다.

사격관에는 실내사격장과 야외사격장, 활쏘기장, 전자유희오락시설들과 식당을 비롯한 여러 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새로 개건된 메아리사격관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2월]

주체103(2014)년 2월

새로 개건된 메아리사격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전의 모습을 알아볼수 없게 일신한 사격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운영 및 봉사활동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메아리사격관의 설계와 시공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니 마치 호텔에 온것 같다고, 사격관마크도 특색있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현대적인 여러 사격장과 활쏘기장, 전자유희오락시설들과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을 잘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메아리사격관의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3월부터 봉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격관이 문을 열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메아리사격관을 잘 관리운영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사격관운영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2018년 5월 촬영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주체103(2014)년 5월 개건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이 한데 어울려 보람찬 야영의 나날을 즐기며 친선의 뉴대를 도모할수 있게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

야영소에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 국제친선소년회관, 야외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야외활쏘기장, 수족관, 조류사, 동물박제품진렬실 등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앞날의 주인공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있다.







새로 개건하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2월]

위인일화

수족관이 일떠서게 된 사연

아이들의 궁전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솟아오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여기에서 제일 멋진 곳이 어디인가고 물으면 아이들은 하나같이 대답할것이다.
그것은 동해가 그대로 들어앉은것같은 웅장하고 신비로운 수족관이라고.
그렇지만 이 수족관은 야영소가 개건되기 전에는 없었다.
주체102(2013)년 5월말 어느날이였다.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보수시에 퇴치할 점들에 대해 세심히 가르쳐주시다가 해양지식보급실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여기가 해양지식보급실인가고 하시면서 방을 둘러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웃음을 띠우시며 해양지식보급실이 원래 영화관이였던것을 개조하여 꾸린것같은데 여기에 좋은 동식물표본들을 보내주어 박물관의 한개 실처럼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야영생들이 해양지식보급실에 와서 생동한 동식물표본들을 보고 여러가지 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인가 결심하시는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그러시다가 동행한 일군들에게 수족관을 잘 꾸려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멋쟁이수족관.
야영소를 돌아보면서 누구나가 감탄을 금치 못하는 이 수족관은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실려 바다가야영소의 특색을 살리며 솟아오르게 되였다.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4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을 축하하는 체육문화행사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5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도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야영소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날 그날을 그려보니 정말 고생한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됩니다. 이런 멋에 혁명을 하는것같습니다.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됩니다.

김 정 은




낙지와 문어(Cephalopoda)




경마

















2017년 7월-9월 촬영

연풍과학자휴양소

주체103(2014)년 10월 완공



경치아름다운 연풍호기슭에 과학자휴양소가 한폭의 그림처럼 솟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연풍호기슭에 터전도 몸소 잡아주시였으며 건설장을 여러 차례나 찾으시여 휴양소를 세계적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과학자휴양소에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휴양각과 종합봉사소, 다용도야외운동장, 실내 및 야외물놀이장, 록화물방영실, 낚시터 등 휴양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위인일화

로고속에 마련된 명당자리

주체103(2014)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는 그길로 과학자휴양소의 터전을 잡아주시기 위해 연풍호로 향하시였다.

목적한 곳에 다달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내가 오늘 국가과학원 원장을 연풍호에 데리고 온것은 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할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가 마음에 드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이 정말 명당자리이라고, 정말 고맙다고 감격에 목이 메여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과학자휴양소형성안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할 자리를 잡아주려고 지난해 여름에 두번이나 연풍호에 와서 배를 타고 호수주변을 다 돌아보았다고, 그렇게 하여 이 자리를 찾아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연풍호기슭의 이 자리가 과학자휴양소자리로서는 명당자리라고 하시면서 여름철에 이곳에 와보니 공기도 좋고 숲이 무성하여 풍치가 정말 멋있었다고, 오늘 보니 겨울철풍경도 그에 못지 않게 멋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과학자들에게 충분히 휴식할수 있는 조건을 다 마련해주면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당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고 경치가 좋은 연풍호기슭에 세상에 없는 최상급의 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해주려고 결심하였다고, 우리는 과학자들을 위한 모든것을 다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속에 마련된 과학자휴양소자리이다.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5월]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10월]



연풍과학자휴양소는 그야말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금방석입니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당에서 큰마음을 먹고 건설한 휴양소입니다.

김 정 은



조형화, 예술화가 실현된 휴양소의 내외부

























2018년 9월 촬영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주체105(2016)년 5월 완공



대성산기슭에 자연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대중교양 및 과학연구보급기지인 자연박물관과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인 중앙동물원이 특색있게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적인 자연박물관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으며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 차례나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을 세계적인 동물원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동물원 개건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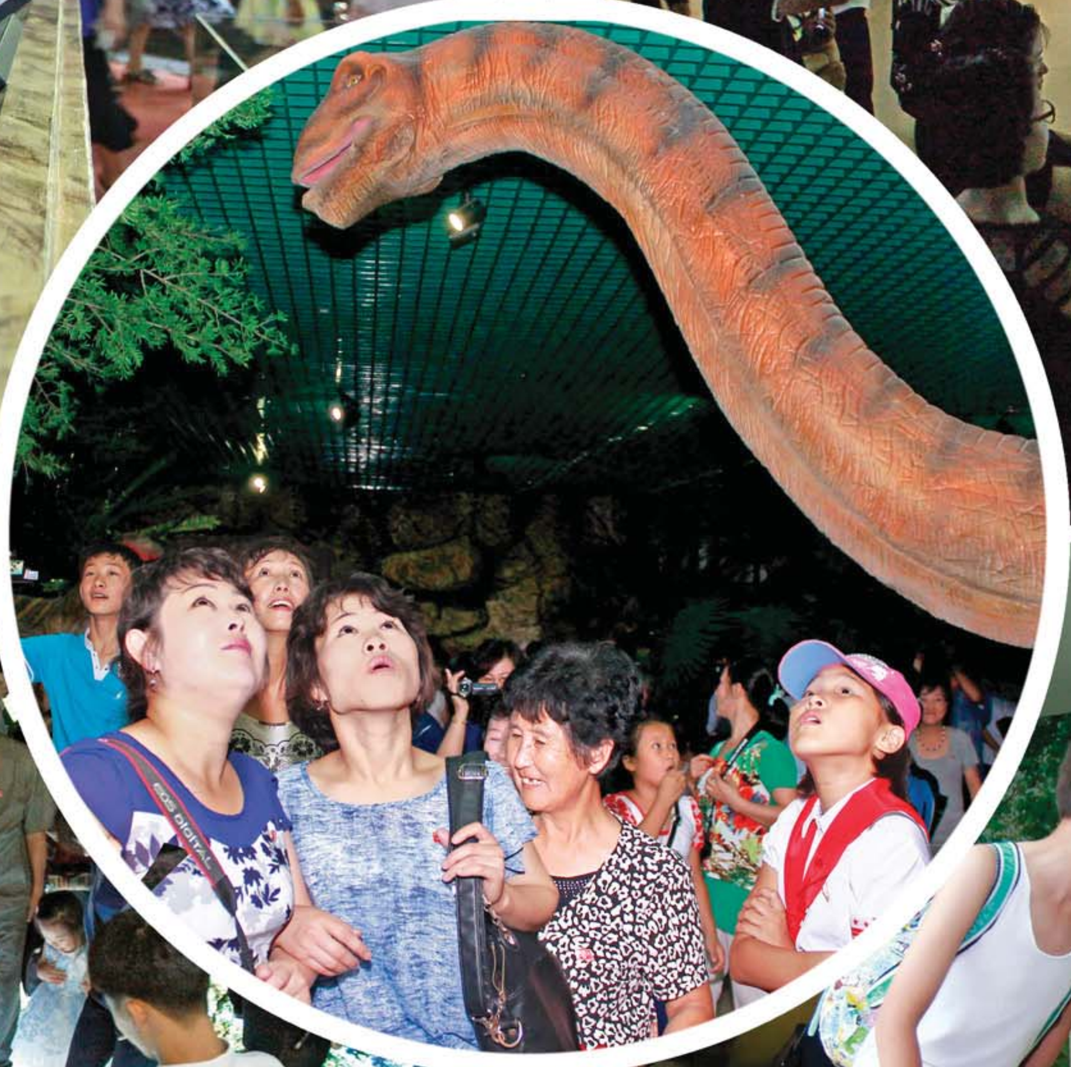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5(2016)년 5월]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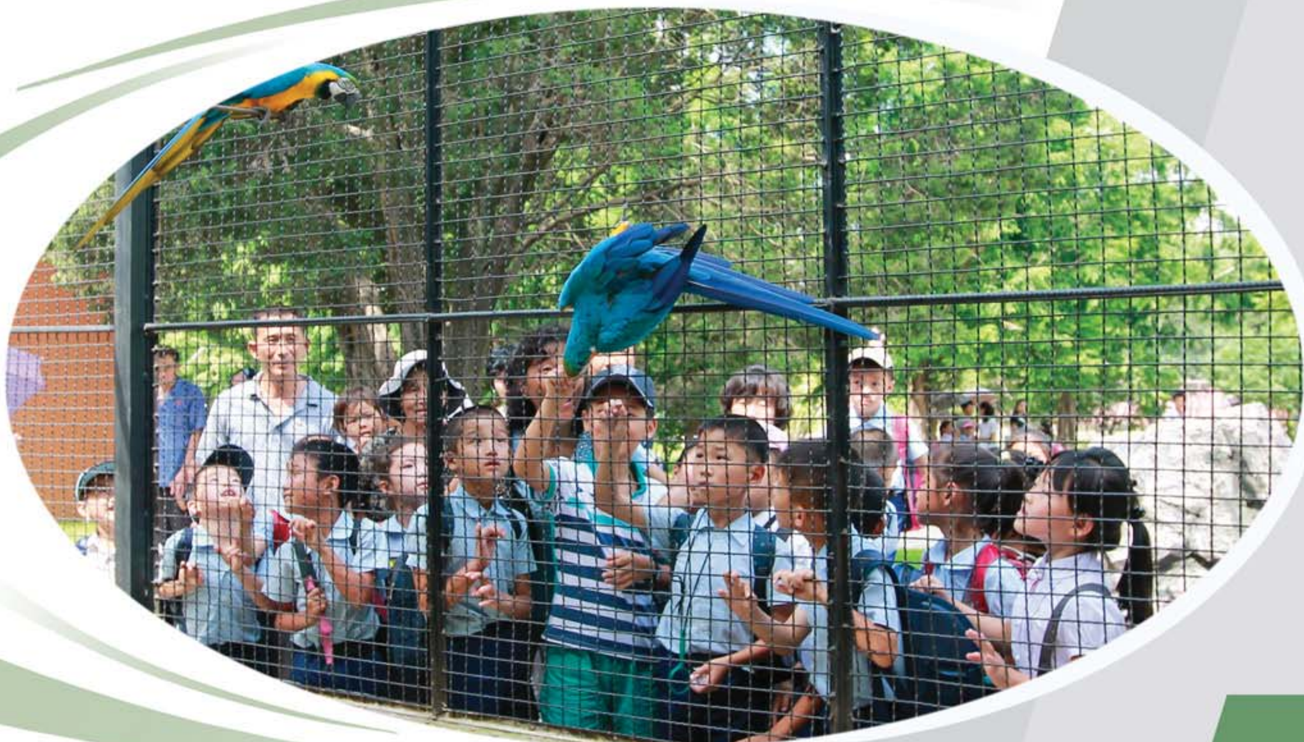




















2018년 8월 촬영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주체108(2019)년 12월 준공



산좋고 물좋고 지형지세도 좋은 양덕에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인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웅장하게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천욕과 스키타기, 말타기를 함께 할수 있는 우리 식의 온천문화휴양지개발을 몸소 발기하시고 비내리는 궂은날, 이른새벽 건설현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미적감정과 세계적추세에 맞게 최고의 질적수준에서 하도록 건설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인일화

몸소 맛보신 온천물

주체107(2018)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안남도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찾으신 그날은 례년에 없는 폭염이 계속되여 숨쉬기조차 힘들던 때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곳곳에는 주변경치가 뛰여나고 사람들의 건강과 병치료에 대단히 좋은 온천자원들이 적지 않지만 휴양 및 료양시설답게 위생문화적으로 온전하게 꾸려진 종합적인 봉사기지가 없다고, 며칠동안 여러모로 따져본 결과 그중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현지료해하고 멋있게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속이였지만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종합려관을 건설할 위치도 몸소 잡아주시고 야외온천도 할수 있게 실내욕탕뿐아니라 야외온탕도 꾸리며 개별온탕욕, 대중온탕, 치료온탕 등 각종 온천욕봉사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콸콸 소리를 내며 솟구치는 온천물을 보시고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뜨거운 온천물이 흰 김을 뭉게뭉게 피워올리며 쉬임없이 솟구쳐오르고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온천물을 한동안 내려다보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과 건설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온천물을 맛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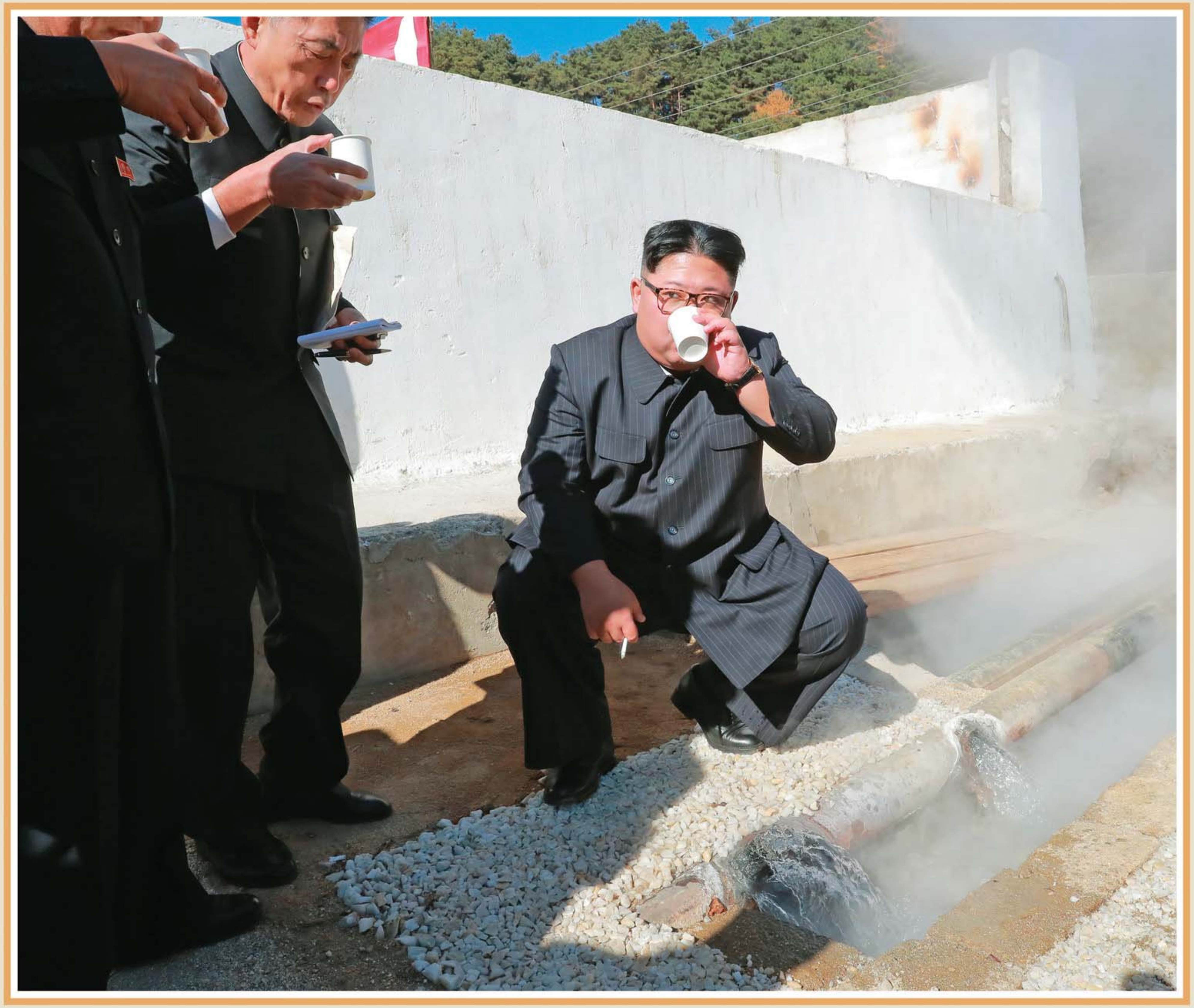
순간 모두가 당황해하였다.

로천의 온천물을 어떻게 그이께 올린단 말인가.

하지만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몸소 온천물맛을 보아주시였다.

고뿌를 드시고 온천물맛을 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존안에 기쁨이 넘치시였다.

펑펑 솟구치는 온천물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앞으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차넘칠 인민의 기쁨을 안아보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히 웃고계시였다.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7(2018)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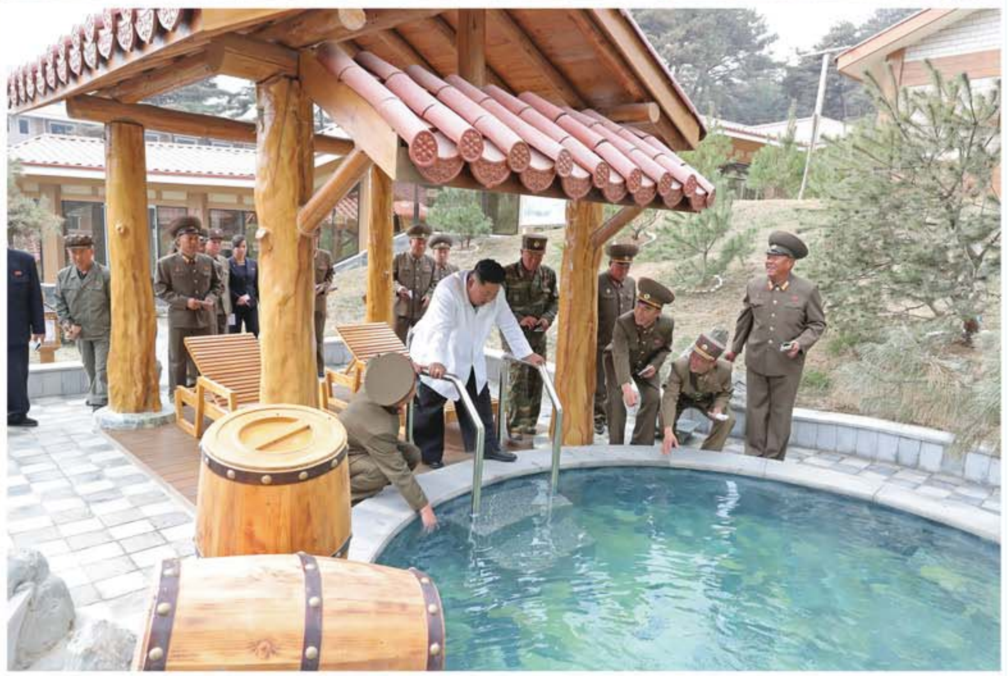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8(2019)년 4월]







완공단계에 이른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8(2019)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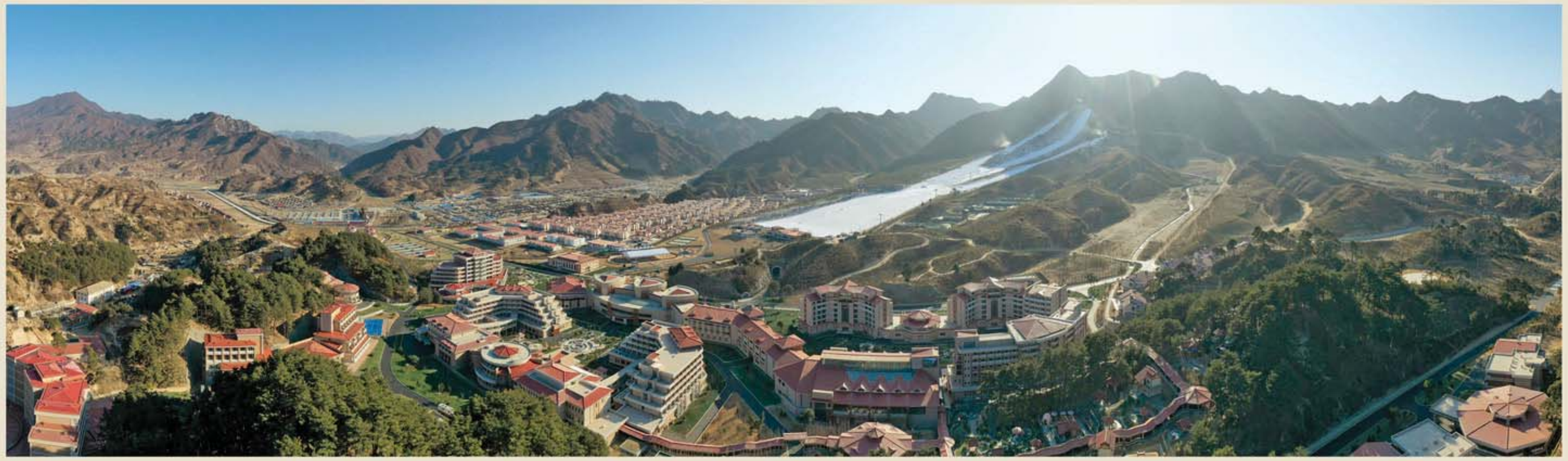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인민사랑의 계주봉을 이어받아 인민들을 위하여 뼈를 깎고 피를 바치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8(2019)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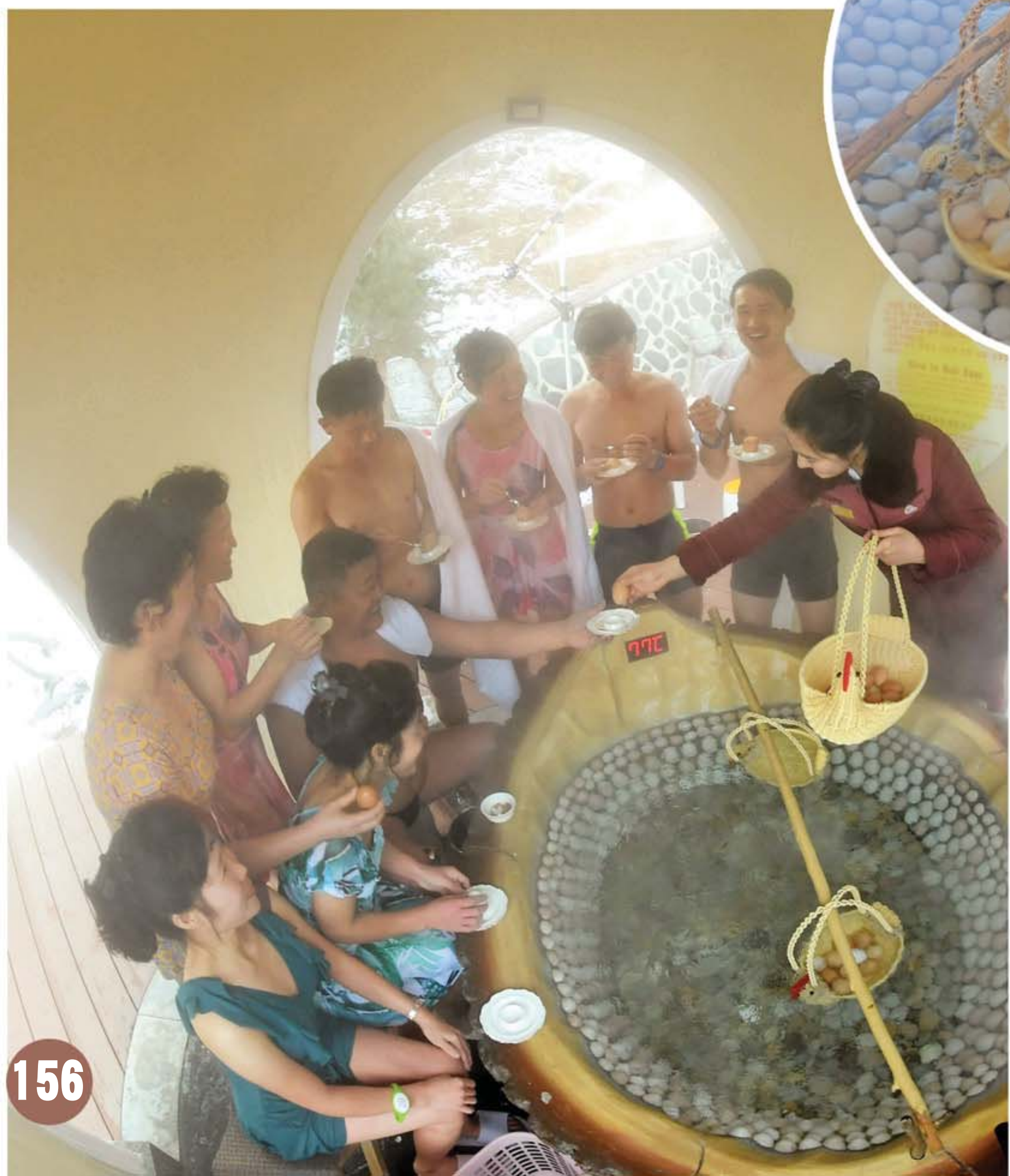


희한하게 꾸려진
여러 온천욕탕들




박하온탕












40











2020년 1월 촬영




넘치는 나의 조국아
인민의 희망 만복의 희망
원수님 그 품이여
밝고 밝아라 우리 사는 곳
래일도 즐겁게 맞네
바라는 꿈이 눈앞에 꽃펴
눈부신 아침 즐겁게 맞네
우린 누구나 기쁨에 넘쳐
— 노래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중에서 —

인민의 웃음 넘치는 행복의 별천지

편 집	김화명
글 및 편성	권지혜
촬 영	로남철, 리철영
낸 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10(2021)년 12월 24일
발 행	주체110(2021)년 12월 26일

ㄱ-1522ㄷ

